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서일기 범위가 7일(화)부터 민수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 멋쟁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멋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이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30차 정기회의가 다음 주일(19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제 39 - 24 호
2022년 6월 12일

사랑방공동체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박동인 · 윤경옥 집사 가정 (이사 감사)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좋은 이웃이 됩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줄어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중·고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줄었지만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이 적은 어린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서로 대면하거나 대화를 하며 키워나갈 사회성의 기회가 적어진 탓에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이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을 뿐,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이미 몇 해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연령도 가해연령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다보면 모든 것이 그렇진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반드시 때를 넘기지 말고 알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학습적인 면에도 있고 생활적인 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때를 따라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1차적인 학습방법은 모방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한 사람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와 가족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앞에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셨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12장 28~3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계명은 2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

수님 말고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끽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 5장에는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그의 이웃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무리 한 가운데로 달아 내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죄사함,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오래도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속죄제도 드릴 수 없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병이 낫고,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이 아니니 아마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 어떻게든 데려가기만 하면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이웃들이 함께 믿어주고 바라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과 같이 내 이웃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바라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방법 중 하나이며, 그렇게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보실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분명 좋은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다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프거나,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닮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장 2절)”. 구체적으로 서로의 짐을 아는 대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이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가족공동체, 더 나아가 어려운 사회에도 덕이 되는 사랑방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 로마서 5장 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민수기 2장

제목 :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라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이재신 집사

찬송 : 325 336 351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2절 주님의 명령

3~11절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들

12~16절 르우벤 진영에 속한 부대들

17절 회막의 위치

18~24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들

25~31절 단 진영에 속한 부대들

32~3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다 하였다

2. 내용의 의미(Why)

주님께서 진을 치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제 탈출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영을 갖춘 이유는 공동체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진영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자.
- ②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자.
- ③ 역할을 맡은 이들은 겸손하게 감당하자.

성서일기

2022년 사랑방 탁구대회 소감

매일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서를 나누던 날이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병 때문에 우리 사랑방교회에서 슬프게도 꾸러기사랑방, 어린이사랑방 등등… 예배 후에 모임을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2020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의 그 속상함을 2022년 6월 5일 사랑방 탁구대회를 하면서 풀었다. 오랜만에 행복했던 예전처럼 재미있게 탁구대회를 즐겼다.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약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이 팀에 많았고, 아멘 팀과 할렐루야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상대팀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와 오랜만에 ‘단식으로 경기를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역시나 단식 복식으로 남자, 여자로 나누어져 탁구를 하였다.

그리고 탁구공으로 하는 여러 게임을 만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었는데, 탁구 농구, 탁구 볼링, 뭔가 좀 이상한 계란판으로 탁구공을 “어떤 팀이 더 잘~~~받나”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다. 정말 즐거웠다.

탁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어서 탁구대회 전날에 고민을 많이 했다. ‘어떻게 하면 탁구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답이 나왔다. 같이 합동을 하고 같이 즐기며 하는 탁구가 2배로 즐겁다는 것이 내 답이었다.

그래서였는지 이번 탁구대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

특별히 탁구대회를 진행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다음에 또 탁구대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탁구대회 날은 그야말로 “즐거운 날”이라는 말 밖에 안 나오는 날이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와 정흠이형, 어머니와 탁구로 이기고 싶다. 경기를 하기 전에 꼭 내기를 먼저 걸 것이다. 기대하시라.

푸른꿈사랑방 김예흠 학생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양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는 이들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김용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요한일서 5 : 6-8

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고린도후서 5 : 17

6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로마서 5 : 1-5

79

설교자
공동체

51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몸 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입니다. 올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하나의 본질과 세 구별된 위격들’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여전히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면서 피조물과도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항상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고,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으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중에도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란에 대처하는 방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환난의 결국이 구원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복음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임진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우리 꾸러기 친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도전하는 친구들입니다. 체육시간을 보면 꾸러기가 얼마나 멋진 친구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체육은 몸도 힘들고, 잘하고 싶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꾸러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도전합니다. 화요일에 높이뛰기를 했는데 5살에는 모두 6단계 높이까지 넘었는데 지금은 10단계를 모두 넘습니다. 중간에 실수를 해서 힘들어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용기내서 도전해 10단계를 성공했습니다. 실수했지만 꾸려기는 옆에서 용기를 줘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힘든 일은 두렵지만 꾸려기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단계 성공한 것도 칭찬하지만 무엇보다 용기내서 도전하는 우리 꾸러기들 정말 멋지고 칭찬합니다^^

6월은 서로 돋는 사람들의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아빠는 어떤 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지산이 아빠가 일하는 연세사랑의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지산이 아빠가 뛰어나와 꾸러기들을 환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어떤 곳이고,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는지 상황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키와 몸무게도 재고, 생각한 질문들도 나눴습니다. 의사선생님으로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꾸러기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지산이아빠의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한 달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의 문해력을 테스트 하고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과 평상시 실천해야하는 일들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EBS의 영상으로 여러 사례들을 함께 보기도 했고 시험 치르듯 문제를 풀어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올바른 책읽기나 후의 글쓰기 까지 교사의 가르침과 더불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해력을 높여 그로 인한 다양한 지식을 이해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것을 바래봅니다.

금요일에는 성교육을 받기위해 창동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했

배움과 가르침

습니다.

고·저 학년으로 나뉘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고학년은 미디어와성, 연애와 데이트를 주제로 했고 저학년은 소중한 우리몸, 생명의 탄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부터 성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어른의 생각보다 많은걸 알고 있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학교를 벗어나 전문기관에서 받게 되었는데, 월요일에 어린이들의 후기를 받아 보면 좀더 명확한 효과에 대해 알수 있을것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삶을 통해 교육되어 지기를 기도드립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비가 올듯 말듯 대체로 맑은 날들이었습니다. 현충일로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등교한 멋쟁이들이지만 13일(월)부터 시작되는 학년별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장소, 음식, 활동, 회비 등을 함께 정한 여행이기에 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

목요일은 공동심화 학습과 열린수업이 있는 요일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저도 목요일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주 공동심화 학습시간에는 'z세대와 트렌드' 9주차로 '철학, 중고거래, 업사이클'이라는 주제로 트렌드를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6학년 멋쟁이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러 다녀온 날이기도 합니다. 익숙지 않은 시험이기에 긴장으로, 부족한 준비로 쉽지 않았겠지만 이날의 경험이 6학년 멋쟁이들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기다리던 학년별 여행을 떠납니다. 특별히 3,5학년은 자전거 여행으로 가는데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교사 : 박예나 >

나의 한주간

요즘은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또 다른 일로 사랑방공동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한발짝씩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아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곳 저곳에서 부산히 움직이며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 주간은 주일 아침에 주보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교역자 게시판에 올린 원고를 수집하고, 혹시 올라오지 않은 원고가 있으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주보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교정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 때에 보지 못하였던 오탏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뭔지 모를 불편함 때문에 예배를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예전처럼 맨붕이 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밖에 있는 사랑방 교인들과 예배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보를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갑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은행 일도 봅니다. 그러면 정말 하루가 후딱 지나갑니다. 화요일은 그래도 제일 여유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낮 12시에 수요정오기도회를 저녁에는 수요기도회를 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주방에서 준비해주신 음식을 공동생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하는데 이날이 내 당번으로 공동식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토요일 여유를 부리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한국기행 5부작으로 지금 여기 어때, 빠름을 이기는 느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보느라 저녁식사후 8시에 공동생활하는 식구들이 예배준비를 하기로 하는 시간에 늦게 도착했지만, 즐겁게 완료…

이번 주간에는 관공서에 가고, 법무사에 가져갈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사랑방은 멈춰 있지 않고,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여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고 잘 활용하여 주님이 주신 길을 잘 갈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 쓴 : 누가복음 10장 38-42절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의 식량위기와 이상기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기후변화 코로나19로 세계가 식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상기후도 식량 위기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소말리아 등이 가뭄에 시달리는 동안 남수단공화국에선 대규모 홍수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종전되고, 기후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가 안정되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1. 한국 공동체 협의회에 속한 공동체들 모두 공동체의 소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2.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운동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서 교회개혁과 사회변혁의 답이 될 수 있기를.
3. 각각의 공동체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회복하여 연합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 생활의 안정화>

1. 예배와 교회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그마음이 어렵고 상처를 받은 분들이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여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2. 생활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의 정상화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 초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려서 메마른 공동체의 밭이 조금은 촉촉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적은 비여서 해갈이 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간만에 내린 비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월요일이 현충일이어서 공동체의 일상은 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예전에 공동생활을 함께 하셨던 김일곤 목사님과 시무하시는 신내 성화교회 성경공부팀이 공동체를 방문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공동체에서 보니 코로나의 안정세가 더욱 실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교회 개혁과 갱신의 모델을 발견하고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영미 전도사>